

## 이렇게 기도하라! - 1. 기도에 대한 의문

마 6: 5-8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같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 왜 기도에 대해 배워야 하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는데, 그래도 꼭 기도해야 하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 변화산 기도회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 역시 기도에 대한 의문을 먼저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위선적인 모양의 ‘종교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는 매우 사업적이지만, 복음적인 기도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동기를 묻는 ‘은밀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행복을 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종교적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설교를 앞두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 말이죠. 물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늘 ‘간절함’의 이유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있지 않고 나의 당면한 문제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용한 분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신가? 내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 지가 자명해 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만남을 요청할 때, 어떤 목적을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며, 그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집에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 찾아오는 자식과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찾아오는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참된 자식일까요?

만일 결혼한 자식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고, 그 돈을 받는 것이 좋아 찾아온다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봐 주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로지 그 분만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뭔가 잘 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도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저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횡설수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기도는 강하고도 반복적으로 하되 의미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과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말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생각이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존 스토프트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습관에 대해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묵주 알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단어를 암송하거나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여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종교 용어들만 늘어놓는 등의 정신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금하신다.

###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 더 많이 말을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더 투자하는 양으로 응답을 결정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혹시 장로님들의 기도가 아니었나요?

장로님들의 기도시간에 잠이 들면 설교시간도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나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전 강단에 빨간 글씨로 크게 “대표기도는 3분 이내에”라고 써 놓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기도는 지금 이 예배시간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어떤 지방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기도 하는 분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하는지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을 봅시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신앙의 의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3천 배를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나 그것으로 자신이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천 번제를 드리고, 작정하고 새벽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망이 보이기 시작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 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야고보서 1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

J. D. 그리어는 [just ask]라는 책에서 ‘영적 간음’에 대한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라. ‘결혼하면 내 성적 요구를 들어준다고 약속한 것 기억하오?’ 아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계속해서 말한다. ‘지금 내 성적 요구는 당신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요. 당신의 친구와 자리를 주선해 주겠오?’

아내가 이 요구에 응할 리 없다. 아내는 간통을 용인하고 맹세한 적이 없다. 아내는 부부 안에서만 성적 욕구를 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만족을 다른 것에서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바로 ‘영적 간음’ 즉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혹시 빗나간 사람들을 위한 기도보다 기도하는 당신이 먼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욕’이 아닌 ‘정결’로 우리를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상대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로 기쁨을 얻으려는 목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가를 주셔서 변화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먼저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의지가 분명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가?”

지난 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민’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조차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음에 주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 불의한 일을 시키는 것. 또한 불륜을 저지르면서 들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하게 불의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잘못된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읽었던 스캇 솔즈의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물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가?

다른 하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가?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답답함’의 시절들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억울함과 답답함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34절 말씀.

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저만 그럴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고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마치는 과정이 어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미국에 가면 차를 사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탈 차니, 능력이 되는 한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도 제가 아들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생각하는 차에서 한 등급 내려서 이야기 하거라!”

목사 안수를 받고,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돋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편한 것 보다는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행복한  
일이다!

그리어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내게 만약 하나님의 남녀 관계에 관한 자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다면 자신이  
7명의 부인과 결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마도 어린 시절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로 인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 달라거나,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혹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둔 부모의 염려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입니다.

태풍이 비껴가면 우리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적’인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만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요?

종종 교인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과 만나면 참 날씨가 좋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사이비 교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떤 날씨라고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난간한 것은 양쪽 감독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대개는 작전을 잘 짜거나, 더 열심히 연습을 했거나,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종교를 조사하고 메달을 딸 때마다 저 선수의 종교가 뭔지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가 믿는 신이 우월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억에 메달을 딴 선수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천 이었던 것을,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 민족의 마음에 그런 순수한 신앙,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느냐 보다, 그 선수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졌느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유아적 신앙의 형태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해 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미란 선수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패했던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진로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이 계으름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상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라는 말은 자신의 최선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종종 교회가 성장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역하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전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 고민할 수는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루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